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이번주 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  
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 3. 축결혼

박희천, 박은진 성도님 가정에 딸 Christine Park 양이 10월 19일 결혼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 지난 주 (10/5)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61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5.10.12 (625호)

1:6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         |                      |              |       |
|---------|----------------------|--------------|-------|
| *예배로 부름 | Call to worship      |              | 다함께   |
| *찬양과경배  | Songs of Praise      |              | 다함께   |
| 기도      | Prayer               |              | 최빅토리아 |
| *주님의기도  | Lord's Prayer        |              | 다함께   |
| *성경봉독   | Scripture Rec        | 누가복음 20:9-19 | 다함께   |
| 교회소식    | Announcement         |              | 유형선   |
| 말씀선포    | Sermon               | 포도원 농부 비유    | 유형선   |
| *찬양     | Praise               |              | 다함께   |
| *봉헌&축도  | Offering&Benediction |              | 유형선   |

#### 주일대표기도

|         |         |
|---------|---------|
| 10월 18일 | 10월 25일 |
| 유영환     | 윤한진     |

#### 예배시간안내

|        |                              |
|--------|------------------------------|
| 주일예배   | 오후 2시 (본당)                   |
| 수요성경공부 |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
| 아침묵상   |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 하늘로부터 온 권위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불편한 생각부터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권위주의의 폐단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권위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말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묵상에서 나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소경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마음상태나 인격을 위에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한 끝에 침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침묵하면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목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 안에 사랑이 담겨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없이 외치는 복음은 울리는 썰매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상황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담대히 전하십시오.